

# 여야, 4·29재보선 승리 '2+α' 확보 혈전

## ■ 오늘 후보등록... 16일부터 공식선거 운동

### 多野구도·통진당 해산 선거·경제민심 등 변수

### 김무성·문재인 첫 맞대결... 대권구도까지 영향

4·29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이 9~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오는 16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을 벌이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무소속 천정배·조남일 후보는 9일 오전 광주 서구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광주 서구를,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중원 4개의 국회의원 재보선 중 2개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인천에서는 보수적인 유권자의 성향을, 성남중원에서는 재선 의원 출신인 후보의 개인 역량을 들어 '백중 우세'에 있다는 자체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을에서도 야당 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인천에서 후보 경쟁

## ■ 4·29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4월9~10일	후보자등록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4월 16일	선거운동 개시일
4월 17일 까지	· 선거공보제출 · 선거벽보 첨부
4월 17일	선거인명부 확정
4월24~25일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4월 29일	투표(오전6시~오후 8시)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력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적 뒷받침인 광주 서에서도 동교동계가 선거 지원에서 나서면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악 을은 27년간 상대

당에 내준 적이 없는 요새 같은 곳이다.

특히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광주 서구를 지원을 위해 후보 등록 시작일인 9일 권노갑·김원기 고문 등이 현지에 내려와 전통적인 옛 민주계 원로와 당원들을 만나 조영택 후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여야가 이처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배경에는 이번 선거가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을 1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민심의 흐름을 짚어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따른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총복 심판'에 초점을 맞춰,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파동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야권 분열은 여전히 난관으로 남아 있다. 야권 분열이 고착화 돼 선거에 패배할 경우 신당 창당이 탄력을 받고 야권 재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선거결과에 따라 거물급 정치인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연일 지역을 찾으면서 자신의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 주요 대권주자인 양당 대표가 취임 후 선거에서 첫 맞대결을 벌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후보로 나선 천정배 전 법무장관(광주 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서울 관악을)이나, 측면 지원하는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 모두 정치 무대에 중심인물로 복귀할 수 있느냐를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는 24~25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8시까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장

### 정승 "당선되면 광주시민에게 '1석 3조 효과'"

정승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8일 "정승이 당선되면 여야(與野)와 광주가 변하고 광주시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부각되는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금호동 정당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보선에서 정승의 당선은 침체된 광주의 경제환경을 살려 광주를 경제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단초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특히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후보를 뽑게 된



다만, 여당이 광주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야당은 긴장해 광주 발전을 위해 여야간 치열한 경쟁을 하는 선의의 경쟁구도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여야간 경쟁구도로 인한 과실(果實)은 광주시민이 누리게 된다"며 "광주시민들의 선택이 다시 한번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조영택, 광주 5개 구의회 의장단 지지선언 받아

광주시 동구와 서구 등 5개 구의회 의장단은 8일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의장단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능력을 검증받았으며 혁신도시 내에 한전 유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등 문화수도 광주의 미래를 설계한 비전 있는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는 앞으로 광주시민 결단에서 민생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인 정권교체를 실현해 나갈 후보인 만큼 지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또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곳에서 지위와 명예를 다 누린 사람이다"며 "야권 분열을 확실하게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지역민에게 또 다른 시련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을 추궁하고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인 정권교체를 실현해 나갈 후보인 만큼 지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또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곳에서 지위와 명예를 다 누린 사람이다"며 "야권 분열을 확실하게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지역민에게 또 다른 시련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천정배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파크 조성' 공약 발표

천정배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서구 마북과 금호동 일원에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북, 박진동 일원에 자동차와 에너지 관련 연구소, 창의융합캠퍼스와 관련 혁신형 기업으로 이루어진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2020년을 목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에는 첨단과학기술인력 500여명과 50여개 기업 등이 입주, 광주 서구와



지역 고용창출, 산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또 "현 재 연간 2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소형 기업으로 이루어진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2020년을 목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에는 첨단과학기술인력 500여명과 50여개 기업 등이 입주, 광주 서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대통령은 '당초 정부가 한 약속과 다르게 손해 보는 일이 없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 책임자는 정책실패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가신 지분 챙기는 게 DJ뜻이나"

### 친노·동교동계 싸잡아 '직격탄'

동교동계의 4·29 재보선 지원 문제를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 내 갈등이 봉합되는 가 싶더니 이번에는 추미애 최고위원이 친노(친노무현)계와 동교동계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다.

추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을 보고 비판에 접거되었던 것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에 앞서 예방했을 때, '지지 세력을 규합해서 분노의 깃발을 들어라'고 했다"면서 친노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또 그분의 뜻이 생전이나 사후에도 가신의 지분을 챙기는데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동교동계와 권노갑 상임고문의 전날 '6대4 지분 배분' 발언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권 고문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최고위원의 '6대4 지분 배분' 비판에 대해 "당이 잘 운영되고 통합되려면(지분을 잘 나눠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 대표랑 통합했을 때도 거기는 당시 5석밖에 없었지만 당직과 기타 공천을 50대 50으로 배분했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주선,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황승홍 교수(국민대 법학과)의 사회로 ▲게임 트렌드의 변화 : 온라인을 넘어 스마트TV, 가상현실로 ▲현행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도입 배경 및 발전사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및 추이 등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있고 이



후 토론회가 진행된다. 박 의원은 "게임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도 실제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진흥을 막는 규제사업의 변화 추세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나아가서 본래의 목적인 게임산업 진흥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강은미 "광주지역 택시 준공영제 도입 필요"

정의당 강은미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선거사무실에서 광주지역 택시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택시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택시노동자들은 "강 후보가 시의원 당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급택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시청의 관리감독과 국토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의 요금인상이나 감차정책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돼 시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택시도 준공영제가 안되면 준공영제라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강 후보는 "택시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여 승객들의 만족을 높일 뿐 아니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함께 보장되려면 택시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